

학사경고자 대상 개별 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김 희 정*
(대구대학교)

A Preliminary Study for a Academic Probation Target Individual Learning Coaching Program Development

Hee-Jung KIM*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 preliminary research to develop an individual learning coach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who received academic probation. It aims to test applicability as a program in the future, and to revise it and make up for its problems. To achieve the research aim, this study, based on self-directed learning, constructed the program dividing it into two kinds: the first basic learning special lecture and the second individual learning coaching.

This program used those students in universities in Gyeongbuk province who received two or more scholastic probations from the second semester of 2012 to the second semester of 2014, and who were judged by professors who had interviewed them as those who needed learning coach.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introduced those students about the program and schedule. And, this study did in-depth analysis for the six students who attended the first and second parts of the program. It was found that those students understoo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tried to apply it to actual learning process and overcome learning difficulty. Based on su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students who receive academic probation and ideas on how to develop it.

Key words : Academic probation, Individual learning coaching, Self-directed learning

I. 서론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심각한 학습부진에 빠진 학생에게 주의를 줌으로써 개인적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크게 장학제도와 학사경고제도를 도입하여 학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제도 가운데 학사경고제는 학생들을 독려하고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Hanger, Goldenson, Weinberg,

Schmitz-Sciborski, & Monzon, 2011)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처벌로 인식하여 좌절과 창피함, 자신감 상실 등 심리적 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감정들은 학습력 회복을 저해하고 학습동기 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eterson & Barrett, 1987; Weiner, 1985) 결과적으로 연속된 학사경고와 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4년 대학 알리

* Corresponding author : 053-8503849, khjflow1176@daegu.ac.kr

미 자료에 따르면 중도 탈락하는 학생 가운데 절반이 학사경고로 학업을 중단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개인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투자한 재원과 인력을 생각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해야 하는 대학의 책무성을 저하시키고(Lee et al., 2013),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각하면 대학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방대의 경우는 인구 특성상 대학 정원 보다 지원자 및 등록률 감소와 위계 높은 대학으로의 편입으로 학생들의 이탈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하게 되면 학생 수 감소와 함께 대학은 재정적인 문제까지 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 선발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선발 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위한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결과라 하겠다(Kang et al., 2000).

최근에는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취업이 대학교육의 중요성과지표로 부상하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대학에서는 교육개발센터(교수학습센터) 및 학생상담센터 그리고 다양한 부처와 연계하여 학습부진학생 및 학사경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사경고자를 돕기 위한 국외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버지니아 대학의 “Academic Achievement Program”, 브래들리 대학의 “AEP 115” 학습전략 세미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Strategies for Academic Success program”, 워싱턴 대학교의 “STAR” 학업책임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Jin, 2015). 이 프로그램들은 소그룹이나 1:1형태이며 강제성을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방

법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국내 프로그램으로는 동기강화 프로그램(Sin & Kim, 2012), 동료멘토링을 활용한 회복탄력성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Km et al., 2014; Kim & Kim, 2015), 자기탐색 프로그램(Lee et al., 2013) 등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개별이 아닌 소그룹형태로 학습전략이나 기술습득보다는 상담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이는 학업 및 학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감소시키고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습을 포함한 근본적인 학습방법과 학습환경 조성 및 시간관리를 포함한 학습행동 변화를 돕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동기, 학습방법, 학습행동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학습동기, 학습방법, 학습행동은 자기주도학습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저절로 생기거나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학습되거나 개발되는 능력이라고 볼 때(Kim, 2013 개인용), 자기주도학습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면 학사경고자들의 학습부진을 완화하고 자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학습을 비롯한 어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주고 스스로 배우도록 도와주는(Gallwey,2000) 서포터 개념의 코칭(coaching)은 명료하고 즉각적인 피드백과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피코치 스스로 ‘내적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돌아보는 자율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Tak et al., 2014).

그러므로 자기주도학습과 코칭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면 성취수준이 낮은 학사경고자들이 학습과정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학업실패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대화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해석을 획득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인간

1) 선문대학교: 찾아가는 맞춤형 워크숍(집단상담)/ 평택대학교: High-up 프로그램, 성적향상장학금 지급/충북대학교: 학습부진자 코칭프로그램(5회기)/이화여자대학교: 일대일 학습컨설팅/한림대학교: 상생러닝 디딤돌 프로그램

상호작용의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때(Lee & Kim, 2005) 대화가 전제되는 학습코칭은 학사경고자를 받은 대학생들의 관점 및 의식, 생활, 정서 등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목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7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학습센터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사경고자 프로그램의 성공 방안으로 1:1 학습코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²⁾.

현재 대학에서 학습상담, 학습컨설팅, 학습코칭 등의 유사한 프로그램명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사경고자 대상의 학습코칭은 드물며,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도 집단형태로 일시적인 행사수준에 지나지 않았다(Joh, 2013). 또한 전문가와 학생이 1:1로 진행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과정을 구안하고, 구안된 프로그램이 원래의 목적에 맞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예비연구를 소홀히 하였다(Lee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학사경고자들이 학습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의 원동력이 되는 자기주도학습을 기초로 개별학습코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사경고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이 본래의 목적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할 것이다.

이러한 예비연구과정을 진행함으로써 학사경고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주도학습 이론을 근거로 학사경고자들을 대상으로 개별학습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써 이론적·경험적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향후 학사경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정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주도학습과 학습코칭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SDL)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학습자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존재로 이해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Song(2006)과 Zimmerman(1986, 1990)는 학습할 때 동기적, 초인지적, 행동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는 것으로, 학업성취를 촉진하는 실제적인 촉진자라고 정의하고, Chung(2000)은 자신이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행위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습 동기 및 목표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계획하고 관리 및 평가하는 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코칭을 정의하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신념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을 계획, 수행, 평가하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자기주도학습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코칭은 스포츠, 기업조직의 경영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습자관점에서 성취를 극대화하고 학습자의 잠재력을 찾아 북돋아 주는 과정으로 학습코칭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자기주도학습은 실용주의 철학에 근거여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되어(Knowles, 1975), 1980년대 이후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Zimmerman, 1990). 초기 자기주도학습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점차 그 대상이 대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2)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 정보공유를 위한 교수학습센터 현황조사 결과(2015)

Zimmerman(1986)는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으로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로 분류하고, Chung(2005)은 이 요인들을 토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검사를 개발하였다. 한편 자기주도학습은 학습동기와 학업성취,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 진로계획과 관련이 있으며(Kim et al., 2015; Kim, 2015) 학업상담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wom & Shin, 201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효과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Han(2006)과 Baik(2011) 등의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동조절, 노트필기 훈련 및 시간관리 훈련 등 자기주도학습의 요인에 따른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행결과에서는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Kim & Park, 2010; Kim, 2013, 2015). Kim(2015)은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및 특성을 알고 관련된 변인 및 기법을 이해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 학기 동안 이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었고 보고하였다. Kim & Kim(2015)은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동료 멘토링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미국 대학은 자기주도학습전략 과정을 개발하여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거나 절충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오픈하였다(Kim, 2013 재인용).

학습코칭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효과와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Choi(2011)는 대학생 취업지원과 진로와 관련하여 연구하였고, Choi & Hwang(2011)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위한 학습코칭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향상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unc(2013)은 학습부진 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기르고 학사경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학습컨설팅 모형을 개발하였고, Jun et al.(2015)는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학습컨설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학사경고를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코칭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은 최근에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사경고자들이 학습부진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로 자기주도학습 이론을 기초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 학사경고자 대상 선행연구

학사경고는 주로 대학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도이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고 있다.

학사경고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학습실패를 분석하여 학습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와 학습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학습실패 분석과 지원방안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수한 학생들과 학사경고자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Kang et al., 2000; Cho, 2000). 이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면 학사경고 집단의 경우 낮은 학교(학부) 및 전공학과 만족도와 학습동기 그리고 학습방법의 미숙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근거로 학사경고자의 학습동기 고양을 위한 학습지원 모형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Jang & Yang(2013)은 공대 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의 원인을 대학생활의 목표 및 동기 부재, 새로운 경험에 대한 대처와 사회적 지지기반의 부재라고 하였다. 이에 따른 학생지원방안으로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도와주고,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실패를 극복 가능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시스템구축을 제안하였다. Ju et al.(2012)는 학사경고를 경험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학사경고에 이르게 된 원인을 대학환경요인(대학 및 전공에 대한 기대불일치, 변화된 환경에 부적응)과 개인내적요인(학사정보 수집 능력 부족, 대인관계망 부족, 자기중심적 조망, 자기조절 능력 부족)으로 나누었다. 학사경고의 원인을 탐색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학업기술과 수행 능력 부족,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재정적인 어려움, 스트레스와 같은 불안정한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sieh et al, 2007; Sage, 2010).

다음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형태를 살펴보면 Sin & Kim(2013)는 집단상담 4회기와 추수지도 1회로 구성하여 개인의 학습 및 삶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Lee et al. (2013)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Ju et al.(2013)는 학사경고자들을 포함하여 학업 저성취 대학생의 자기결정성과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학습컨설팅을 활용하여 시행한 집단프로그램으로 Jun et al.(2015)는 집단학습컨설팅 프로그램이 학사경고자의 적극적 학습전략 개발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Yune(2013)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평균 평점 2.5 미만의 학습부진을 겪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도록 하는 예방적 학습컨설팅 모형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워크숍 형태로 동료멘토링을 활용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Kim et al. 2014; Kim & Kim, 2015).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은 2박 3일 간 동료멘토와 멘티가 합숙을 하면서 운영되는 형식이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관련 내용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강의한 후 동료멘토와 멘티가 팀활동으로 2주에 한번 씩 총 8회기에 걸쳐 16주간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학사경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실태분석 및 원인을 규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렇듯 학사경고를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점차 활성화 되고 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이 집단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습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가와 학생이 1:1로 학습코칭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부진의 원인을 내·외적으로 파악하여 학습과정 및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예비연구를 시행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소재의 4년제 사립대학에서 2012년 2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학생 가운데 1차 교수면담에서 학습코칭이 필요하다고 판명된 1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78명 학생에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정을 이메일,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1차‘기초학습 특강’과 개별 학습코칭 4회기 이상(코칭 3회기, 추수지도 1회기)참여한 최종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과정

가. 연구팀구성 및 프로그램 안내

연구팀은 학습컨설턴트 및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학 박사 1명, 박사과정 수료자 2명 그리고 학생상담센터 상담 수련생 8명으로 구

성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o	gender	grade	Major	Coaching count
1	female	1	Faculty of Arts	4
2		3	Electronics	4
3		3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5
4	Man	2	Mechanical Engineering	4
5		3	Electronic Engineering	4
6		3	Garden of Life Science	6

프로그램 안내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지도교수와 면담에서 학습코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들에게 3명의 연구원이 세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을 안내하였다. 이때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식상할 수 있으므로 매번 새로운 학습 Tip을 이미지화하여 제공하였고, 학생들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며 학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학사경고자들은 스스로 느끼는 낮은 자존감으로 학교장면에서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비밀보장을 해 주어야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Lee et al., 2013). 한편 학생상담센터의 수련생들이 학생에게 개별로 연락하여 이메일 및 참여 여부를 확인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나.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절차

Sage(2010)는 학습기술 교육은 집단으로 상담은 1:1로 이루어질 때, 학사경고자를 돕기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사경고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교육은 집단형태로 1회기, 학습코칭은 1:1로 해서 4회기(추수지도 1회기 포함)이상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1차 기초학습특강은 자기주도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코칭과 연계하여 실제로 경험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방법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을 강조하였다. 특강 시 이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밝히는데 이때 ‘학사경고(자)’라는 용어보다는 ‘학습부진’이라는 단어로 대신하였으며 학습코칭은 정제의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함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결국 1차 기초학습특강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와 학사경고자들을 개별학습코칭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었다.

2차 개별학습코칭은 학생들 스스로 신청하여 교육개발센터 학습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참여 학생들에게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이해시키고 코칭 시 내용을 기록하는데 동의를 얻었다.

<Table 2> Individual Learning Coaching Program Configuration

Program	Subject
I Basic Learning Lecture	3)Self-directed learning inspec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coaching
	Session 1 Test result interpretation self-directed learning Explore the usual learning and self-diagnostic
II Study Coaching	Session 2 Motivation and behavior (Objective and time management)
	Session 3 Cognitive and behavioral strategies (Studying methods and practices)
Harvest Maps	Learning attitude and change processes, etc.

회기별 프로그램 주제는 연구팀이 자기주도학습 맥락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생에 따라 그 코칭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방향은 합의하였다. 1회기에는 기초학습특강에서 실시한 자기주도학습검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평소 자신의

3) 자기주도학습 결과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학습습관을 진단하고 학습코칭의 진행방향과 변화의 의지를 다졌다. 2회기부터는 지난 회기 코칭 내용을 토대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동영상 자료와 PPT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1회기 이후 일정은 연구원과 논의하여 정하고, 개별학습코칭 3회기를 마치면 학생들에게 참여 만족도와 변화정도를 자가평가 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수지도 이후에도 참여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학습 특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만족도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둘째, 학습코칭일지에 기록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비구조화된 자료가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를 면밀히 해석함으로써 메시지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진의를 체계적·객관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Krippendorff, 1980; Lee & Kim, 2005). 학습코칭일지 내용분석을 위해 연구팀 3명과 학습컨설팅 1급 자격증을 소지한 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료 전사(transcription), 코딩(coding), 범주화(categorization)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는 참여자가 적은 사례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학습코칭 시 기록한 일지를 연구원들이 공유해서 영역을 추출한 후, 여러 번의 합의과정을 거쳐 내용을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초학습특강

기초학습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4.03(5점 척도)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행 및 특강 내용에 대한 만족도’, ‘개별 학습코칭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지’는 높게 평가된 반면에 ‘학습동기 형성 여부’는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1회 학습법특강으로 학습동기를 형성

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1:1 학습코칭 내용 분석

1:1 학습코칭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대학입학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정해진 시간표대로만 생활하면 됐는데 대학에 와서는 시간도 많고 자유도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즉, 대학입학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고 그 다음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서 학습동기 부여가 어려워지고 자기통제나 시간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편 학사경고를 받고 나서 다음에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불성실한 자신을 보게 되고 이는 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것 같은 불안함으로 이어졌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학습코칭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고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강했고, 연구원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장·단점을 물었을 때 자신의 장점은 말하지 못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긴 시간을 소요한 반면에 단점은 막힘없이 잘 나열하였다.

그러나 학습코칭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조금씩 변화하였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부끄러워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태도와 방법을 진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학습코칭일지 기록과 3회기를 마치고 작성한 학생들의 자가평가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일부 기술하였다.

가. 학습코칭을 참여하게 된 계기

학생들은 기초학습특강을 듣고 신청했다고 하였다. 몇몇 학생은 학교홈페이지에 학습코칭 실시에 대한 공지를 본 기억은 있는데 관심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특강에서 자기주도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코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엇을 하

는지, 어떻게 참여하고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 학생 1: 혼자서는 동기주도, 인지주도, 행동주도를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전문 선생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참여했다,

참여 학생 2: 처음 학사경고를 받았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경고를 받고 보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깊은 고민에 빠져있었다. 그런데 기초학습 특강을 통해 학습코칭을 알게 되었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 학사경고를 받은 원인 자가진단

학사경고를 받은 원인에 대한 지각 영역을 목표 및 학습동기의 부재, 학습방법, 시간관리의 어려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1) 목표 및 학습동기의 부재

참여 학생 3: 머리가 특별히 나쁜 것 같지는 않고 목표가 없는 것 같다. 목표가 없으니 학습에 의욕도 없는 것 같다.

참여 학생 6: 자신은 기술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전문대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4년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전공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2) 학습태도 및 방법

참여 학생 2: 출석도 잘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그런데 학습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과제를 제출할 때도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제출한다.

참여 학생 4, 5: 수학이나 물리와 같은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다. 수업에 들어도 모르니깐 딴생각만 하게 되고 답답하고 이걸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감당할 수 없어 자포자기 하게 된다. 시험 기간이 되면 너무 할 것이 많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짜증만 나고 그냥 대충하거나 손을 놓게 된다.

3) 시간관리의 어려움

참여 학생 4: 공강시간을 비롯한 자투리 시간에 멍하게 있을 때가 많고 잠자기 일쑤다. TV를 보기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씩 본다.

참여 학생 6: 공부 시작하기까지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모르겠다. 교과외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른 공부 시간 배분이 어렵다.

다. 학습코칭 참여 후 변화 및 자가평가

학생들은 스스로 올라메고 있던 학사경고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약속한 시간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스스로 찾은 학습방법을 적용해 보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회복하였으며 표정도 밝아졌다. 또한 학사경고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던져버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 해결하는 과정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참여 학생 1: 매 회기 자신의 대학생생활과 학습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말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다.

참여 학생 2: 막연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그 동안 들었던 공부방법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는 남의 눈치 안보고 나한테 맞는 공부방법으로 즐기면서 공부할 것이다.

참여 학생 3: 학교에서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학기에 4.0이상을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느낌이 온다. “무엇보다도 나는 학사경고자라는 생각보다는 ○○대학교 학생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참여 학생 4: 학사경고자라고 스스로 낙인찍지 않을 것이다. 입학할 때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것이라는 목표를 되새겨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추후 중간점검을 하기 위해 다시 찾을 것 같다.

참여 학생 5: 학교는 우수한 학생들만 신경 써

주고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열등생에게도 도움이 손길을 뺏어져서 마음이 든든해졌다. ‘할 수 있다’와 ‘할 수 있을까?’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참여 학생 6: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장점을 극대화하면 단점은 자연스럽게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더 고민해야겠지만 지금은 학점을 잘 받고 싶고 졸업하기 전에 장학금을 한번 받고 싶어졌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사경고를 받은 대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학습 특강은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강의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자기주도학습의 이론적인 부분이 개별학습코칭으로 이어졌을 때 학습효과의 극대화 가능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자기주도학습의 틀을 구체화 하고 조금은 낮설 수 있는 개별학습코칭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개별학습코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기초학습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특강 내용의 만족도와 개별 학습코칭 참여의지는 모두 4.23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개별 학습코칭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초학습 특강을 듣고 신청한 학생들이었다. 그러므로 학습코칭 프로그램 공지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법도 좋지만 학업실패로 자존감이 낮은 학사경고자들은 학습코칭에서 다루어질 학습내용과 과정을 설명하고 함께 학습력을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강 형태의 오리엔테이션은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습동기 형성(3.78)과 유사한 학습특강의 참여 여부(3.92)에 대한 응답은 4점 이하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개별학습코칭 진행과정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학습목표 및 동기의 부재, 학습태도 및 방법의 부족, 시간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학사경고의 원인이 ‘학업 동기 부족’, ‘학업 및 시간관리의 어려움’이라고 보고한 Park과 Keum(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생들은 대학진학이라는 목표를 성취한 후 명확한 학습목표를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학습동기가 떨어지고 그 결과 심각한 학습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 간에 정적상관이 있고 (Lee & Kim, 2014),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학교생활과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Kang et al., 2000; Jo et al., 2000; Shunk & Pajares, 2004)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학사경고에서 벗어나 학업을 회복하고자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동안의 불성실했던 학습습관을 바꾸기 어려웠고, 자신에게 적절한 학습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 일쑤였다. 이는 공부의 양과 습관 및 태도, 그리고 학습전략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Kang et al(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비효율적인 시간활용으로 평소공부가 시험대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강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고 있었다. 대학입시라는 외적목표로 정해진 시간대로 생활한 중·고등학교 시절과 달리 대학교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에 적응해야 하므로 시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는 시험 및 시험준비 전략으로 중요한 요소로 (Lindemann, Cabret, 1995; Loulou, 1995; Peniston, 1994) 학업성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Kang et al, 2000; Campell, Svenson, 1992) 보고한 연구들을 지지한다.

셋째, 개별학습코칭을 참여한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사경고는 학습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며, 학교는 우수학생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게 되었다. 또한 학업 실패로 낮아진 자존감을 점차 회복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과 시간관리 방법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함, 무기력함, 무능함, 부족한 자기통제에서 벗어나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교, 교수, 부모님 등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학업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찰하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의지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Ju et al., 2012).

넷째, 3회기 학습코칭 후 학생들이 자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 학생 대부분이 개별학습코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다른 학생에게 추천할 의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습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영역으로 집중력향상방법, 시간관리와 학습방법, 학습동기,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영역을 참고하여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특강(워크숍)을 기획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경고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 내용과 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지만 참여 학생 수가 적었다. 그러나 1차 기초학습 특강 참여자들의 개별학습코칭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은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학생경고를 받은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1차 기초학습특강을 제도화하고 개별학습코칭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즉 프로그램의 참여에 있어서 강제성과 자율성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학습 특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수업시간과 겹쳐서 어렵다고 하였다. 중도이탈을 막기 위해 학사경고자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므로 ‘공인출석제’를 인정해 주거나 프로그램 시행시간을 방과 후로 하든

지 동·하계 방학을 전·후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학습 특강 후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학습동기 형성과 유사한 학습특강의 참여 여부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90분 내외의 특강으로 학습동기부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 ‘기초학습 특강’시간을 늘리거나 워크숍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하루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기초학습특강 참여자 21명 가운데 12명이 개별학습코칭을 신청했는데 4회기까지 진행된 학생은 6명이었다. 이와 같이 개별학습코칭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진행 중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특성에 따라 학습전략보다 정서적 회복이 우선인 학생도 있고 담당연구자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내 학생상담센터 및 각 부처와 연계하거나 학생들의 호소하는 문제에 따라 연구자를 바꿔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 할 때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연락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교내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학생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지도교수 면담 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내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추천해 준다면 학생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던져버리고, 학습회복의 의지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학습코칭 후 담당 연구원들과 지도교수님의 추수 지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참여 학생들의 자가진단과 변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

였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사전-사후 검증으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중요한 요인으로 프로그램 참여 후 학업성취도(학점)의 변화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공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 물리와 같은 기초학습부족으로 인한 학습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학습 강의개설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공과대학의 경우 학부(과)별로 주요 교과목 보충교육과 핵심기초교육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사경고자들이 수강하도록 하였다 4). 그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 한 남학생의 경우에 군경험이 있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 경험은 하나의 사회경험으로써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Jang & Yang, 2013).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군 경험 여부를 포함한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학사경고자들이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이고, 경북소재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지역, 학교,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학사경고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16년 현 시점에서 2012-2014년 자료 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효과적인 학사경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써 1차 특강은 자기주도학습 전략을 설명하고 2차 개인학습코칭으로 연계할 목적으로 1회 진행하였다. 그러나 1

회 특강으로 학사경고자 대상 프로그램 가능여부와 개별학습코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사경고를 받고 좌절하기보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학사경고)가 발생하기 전 잠재 학사경고집단의 예방차원의 지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년별 학사경고자를 분석한 결과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학기 학사경고자 비율이 2학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시절과 다른 대학공부와 환경 등의 부적응이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차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입생 필수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사경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ik, Kyoung-Sook(2011).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2(1)77-95.
- Campell, R. L. & Svenson, L. W.(1992). Perceived level of stress among university undergraduate students in Edmonton, Canada. Percept Mot Skills. 75(2), 552-554.
- Cho, Kyung-Won · Kang, Soon-Wha · Lee, Eun-Kyoung & Nan Mee Yang(2000). A research on students with academic probation and program for academic development. Journal of Student life research(Ewha Womans University). 34, 51-97.
- Choi, Chang-ho(2011). Making a Counterproposal of Coaching in Supporting College Students' Career and Employment.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1), 79-99.
- Choi, Hye-Ran · Hwang, Boo-Soon(2011). The effect academic coaching based group counseling has on the self-efficacy improvement of a university

4) 금오공과대학교 ACE 심포지엄(2015). 학생역량개발 및 교수학습지원 체제

- student. *Journal of College life research*, 17(2), 57~73.
- Chung, M. K.(2000). Develop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Gifted and Talented International*, 16(1), 27~39.
- Chung, Mi-Kyung(2005).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18(3), 155~181.
- Gallwey, T.(2000). *The inner game of work*. Texene: Random House.
- Hanger, M. A. · Goldenson, J. · Weinberg, M. · Schmitz-Sciborski, A. & Monzon, R.(2011). The bounce back retention program: One-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13, 205~227.
- Han, Soon-Mi(2006). Development and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y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7(3), 1~30.
- Hsieh, P. · Sullivan, J. R. & Guerra, N. S. (2007) A close look at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and goal orientation. *Journal of Advanced Academics*, 18(3), 454~476.
- Jang, Ae-Kyung · Yang, Ji-Woong(2013).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Students Being on and Overcoming Academic Prob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2), 995~1013.
- Jin, Dal-Lae(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 utilizing e-portfolios for the improve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within underachieving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Educational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 Joo, Y. J. · Bong, M. & Choi, M.(2000). Self-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internet self-efficacy in web-based instruction.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8(2), 5~17.
- Joh, Seong-Jhin(2013). Case Study on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oaching Program..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15(3), 235~246.
- Ju, Young-A · Kim, Young-Hye & Won, Su-Kyoung (2012). An Exploration Study of the Factors for Understanding Academic Achievement Failure and Academic Persistence on Academy Probation: Focus Group Interview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14(4), 47~69,
- Jun, Bo-ra, Kang, Seung-hee & Yune, So-jung(2015). Academic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having academic probation experiences and the Effect of learning consul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earning strateg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9), 137~160.
- Kang, Soon-Wha · Lee, Eun-Kyoung & Yang, Nan-Mee(2000). A study About Developing the Academic Support System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High Achievers and Underachievers in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the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2), 221~242.
- Kim, Eun-Young(2010). Development and Effect of Focused Behavior Regulation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10), 21-44.
- Kim, Eun-Young(2010). The effect of time-management training on women university students' time management behavior, academic procrastination, volitional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 351~371.
- Kim, Eun-Young, Park, Seung-Ho(2010). The effect of note-taking strategies training on women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ttentional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3), 525~543.
- Kim, Na-mi · Kim, Hyo-won(2015). The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of a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 through a Peer-Mentoring System of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2), 875~900.
- Kim, Na-mi · Kim, Hyo-won & Park, Wan-sung (2015). Effects of a Resilience Improvement Program Applying a Peer-Mentoring System on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2(1), 391~412.
- Kim, Seong-Hun(2015).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s at University: Influences on Self-Awareness,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Global Creative Leader*, 5(2), 71~91.
- Kim, Seo-Hyun · Yim, Hye-Rim & Chung,

- Ick-Joong(2015). Does Self-Direction in Learning Influ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addition to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Youth Welfare* 17(1), 305~332.
- Knowles, K. S.(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Association Press.
- Krippendorff, K.(1980).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Newbury Park: Sage.
- Kwon, Young-Bae · Shin, Moonseung(2012).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Academic Counseling Progra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3), 23~41.
- Lee, Jong-yeun · Kim, Bok-mi & Chang, Eun-ju(2013) Development of Program (Exploring Myself) for Unsuccessful College Students i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1), 359~384.
- Lee, Gyeong-Hee · Kim, Ji Yeon(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Cours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KCI*, 17(4), 33~57.
- Lee, Yong-Sook · Kim, Young-Cheon(2005).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Kyoyookbook.
- Lindemann, R. A. & Cabret, M. L.(1995). Assessment of dental student studying strategie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59(11), 1020~1026.
- Loulou, D.(1995). *Making the A : How to study for tests*. ERIC Clearinghouse on Assessment And Evaluation, Washington, DC.
- Park, Young-Min & Keum, Myoung-Ja(2011). 2011 school year, academic counseling, academic probation subjects. *Journal of College study (Daegu University)*, 19. 109~117.
- Peniston, L. C.(1994). Strategies on time management for college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enter for academic support programs, Llobcock, TX. 221~242.
- Peterson, C. & Barrett, L. C.(1987). Explanatory style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university fresh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03-607.
- Sage. T. L.(2010). *Academic probation: How students navigate and make sense of their experienc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
- Sin, Sung-man · Kim, Jeong-Hun(2012). Enhanced synchroniz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Alerter. *Journal of College study*, 18(1), 75~109.
- Song, In-Sung(2006). *Self-directed learning for field application*. Hakgisa.
- Shunk, D. H. & Pajares, F.(2004). *Self-efficacy in education revisited: Empirical and applied evidence*. In: D. M. Mc Inerney, & S. Van Etten (Eds.), *Big theories revisited (Fourth)* (pp. 115-138). Information Age Publishing, Inc.
- Tak, Jin-Kook · Lim, G Reen & Jung, Jae-Hee(2014). The effects of group coaching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to enhance happines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3(1), 139~166.
- Weiner, B.(1985). An attributional theory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 Yune, So-Jung(2013).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Preventative Learning Consultation Program for University Underachievers*. *The Korean Society Fisheries And Sciences Education*. 25(3), 643~660.
- Zimmerman, B. J.(1986)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Which are the Key subproces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1, 307~313.
- Zimmerman, B. J.(1990)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n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3~17.

-
- Received : 02 May, 2016
 - Revised : 16 May, 2016
 - Accepted : 03 June, 2016